천국이라니 정말 뜻밖이다!

(마17:1-8)

1.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이라니 정말 뜻밖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뜻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속으로 마음먹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중요성이나 가치, 이런 것도 '뜻'이라고 말합니다마는, '뜻하다'라고 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결정,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밖에 천국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콜라 계(系)의 영원한 숙적,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얽힌 이야기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펩시콜라가 영원히 코카콜라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가 제2인자의 자리를 벗어날 것은 꿈도 못 꾼 상태에서 코카콜라에 눌려있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트로피카나'라고 이름 하는 주스브랜드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주스브랜드를 사들여서 코카콜라에 뒤지고 있는 매출을 전체적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펩시콜라 자체가 미국 내에서 코카콜라의 판매량을 넘어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주스를 펩시콜라가 팔고 있다는 이야기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원액주스가 주는 건강음료라는 인식이 펩시콜라 위에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딱 마이크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하면 그 누구도 펩시콜라가 건강음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트로피카나'라는 주스브랜드를 펩시에서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펩시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트로피카나를 사들일 때 펩시는 펩시콜라 자체가 코카콜라를 이길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뜻밖의 행운, 뜻밖의 대박.
마치 알리바바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가 뜻한 바가 뭐였습니까? 나무하는 거예요.
나무하는 데에 그의 뜻은 다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에 40인의 도적이 온갖 보물을 다 갖다 숨겨둔 보물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코드 하나만 있으면 무한의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횡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도둑질이지만 말하자면 알리바바가 도둑 위의 도둑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동화가 얘기하는 이 뜻밖의 행운, 뜻밖의 대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변화산 체험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헬몬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는 헬몬산이 3천 미터로 너무 높아요.
하여간 헬몬산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중에 주님 주변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몸이 빛의 body가 돼버려요, 빛으로 이루어진 body가 돼버립니다.
얼굴이 태양 같고 옷이 희다, '옷이 희다'는 것은 발광체처럼 빛 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옷을 뚫고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아버지와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육체의 시야에 보여 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 죽었다고는 하지만 무덤을 알 수 없는 모세가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휘황찬란한 광경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단지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너무 황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알려지는 것은,
'헬몬산 속에서 살자!'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또 헬몬산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초막 셋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셋을 짓고 나면 자기들은 어디서 살 것입니까?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뭡니까?

산 위에서 살자고 하는 말은 산 아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린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충격적으로 좋은 일을 만나거나 더 충격적으로 나쁜 일을 만날 때입니다.
여기서는 충격적으로 나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니까.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충격적으로 좋은 상황을 눈앞에 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면, 산 아래에서 뜻한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좋은 사건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뜻한 바보다 더 좋은 충격적인 사실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가족보다 더 좋은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선배들 중에 일제시대에 나라사랑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사랑,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한 기독교인 모든 선배들은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천국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왜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만류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꾸중을 내리시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뜻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독립이에요, 그리고 그 독립된 나라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 밑에서 신하 자리 하나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꽃 피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뜻한 바가 그것이에요.
제자들의 뜻한 바는 모두 산 아래에 있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위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개선돼야 되고, 어떻게 잘돼야 되고, 어떻게 높아져야 되고,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고, 모든 뜻하는 바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위에 있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되, 십자가 지점까지 나를 따라와야 따를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일이 이것이다' 하고, '쾅'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그 천국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이고, 십자가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아직 그렇게 못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뜻하는 바가 그들의 전부인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뜻하며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 가족들과 심지어 자신까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뜻밖의' 상황 앞에서 그만 황홀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
여기가 좋다는 얘기는 충격적으로 좋아서 나 자신보다 더 좋은 상황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정의 내리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직도 나라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식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요.
뜻밖의 상황이에요, 뜻밖의 상황.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하는 고백이 어떻게 경험돼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6장 하반부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고참이 되면 안돼요.
먼저 이 상황에 와있는 자처럼 내가 먼저 이 상황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있는 자요,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고참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일이 딱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신참내기가 하는 일은 고참이 그 일을 어떻게 보는지 고참의 표정을 읽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먼저 느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사업에 대해 먼저 느끼면 예수님이 날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예수님, 날 따라와 주세요!' 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날 따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 지상에서 나의 이웃으로 살고 계시던 그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신 뜻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죽으셨다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일이 나타납니다, 뜻밖의 일이.
사업과 연관성 속에서 골치 아파하면서 그래도 그것에 대해 느끼는 바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십자가까지 쫓아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헬몬산 위로 올라가서 산 아래 삶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업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와 전혀 상관없이 '뜻밖에' 천국이 주어져버립니다.
나라의 독립과 독립된 나라에서 신하되기를 원했고, 이러한 인생의 뜻을 품고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뜻밖에' 천국이 딱 주어집니다.
나무하겠다는 뜻을 갖고 올라간 알리바바에게 '뜻밖에' 도적들의 보물창고가 눈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펩시콜라가 주스브랜드를 사들였는데 '뜻밖에' 코카콜라를 압도하게 돼버린 것처럼.
'뜻밖의 것'이 주어집니다.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천국이 주어지는데, 이 천국을 딱 보고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사업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사업에 대해 소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 '뜻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뜻은 전부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뜻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주어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참으로 인정해드리고 고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참이 하는 대로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 같이 죽어버리면 뜻밖에 천국이 나타나는데, 그 천국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까~맣게 마음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원도 없고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은데 충격적으로 좋아서 나 자신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 체험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뜻하는 바는 전부 이 지구 위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뜻밖의 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뜻밖의 일,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놓여 있는 상황은 언제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유가 있거나, 집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

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해결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참이십니다.
먼저 와계신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를 거쳐나가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세상에서 나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뜻'밖의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뜻밖의 천국을 안고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좋아서, 항상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천국을 만나니까 지금 여기가 항상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헬몬산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를 거치고 그리고 뜻밖에 천국을 보니까 항상 지금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아서 이 세상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세상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끌고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제대로 따라온 자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안 끝났어요, 내일 이 본문을 하반부에 다시 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굉장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말하지 말고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선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내일 함께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매순간마다, 매문제마다, 매상황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 때문에 시달리고 예수님께 나갔었는데, 예수님을 고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갔을 때, 언제나 뜻밖의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 나 자신까지도 천국을 보게 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끌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삶의 패턴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도 뜻밖의 천국을 만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지점인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뜻한 바와는 무관하게 뜻밖의 천국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천국에서 완전히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세상에 대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끌고 내려가 나의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